

버뮤다의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06. 8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3
IV. 국제신인도	5
V. 종합의견	6

버뮤다

I. 일반개황

면적	55 Km ²	GDP	44억 달러(2005년)
인구	6.5만 명(2005년)	1인당 GDP	68,353달러(2005년)
정치체제	자치정부(대표민주제)	통화단위	Bmd
대외정책	-	환율(달러당)	1.0(2005년)

- 버뮤다는 북대서양 서쪽,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동쪽 900km 떨어진 곳에 있는 7개의 큰 섬과 150개 이상의 작은 섬들로 이루어진 군도로 남북으로 약 39km, 동서로는 평균 1.6km에 걸쳐 있음.
- 동국은 가장 오래된 영국령 중에 하나이며, 카리브해의 대표적인 역외금융센터이자 관광국으로 총인구는 6.2만명(흑인 58%, 백인 36%)에 불과하나, 1인당 GDP가 60,000달러를 상회하는 고소득국임.
- 좁은 국토, 적은 인구, 빈약한 자원 등의 요인으로 농업 및 제조업 등 기타산업기반이 매우 취약하여 대부분의 주요품목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그러나 정치적 안정, 자유로운 외환제도, 낮은 조세율, 예금주의 비밀보장, 잘 발달된 통신망 등에 힘입어 세계 유수의 역외금융 및 국제비즈니스 중심지로 발달해 왔음.

II. 경제 동향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GDP(백만달러)	3,516	3,816	3,966	4,170	4,409
1인당 GDP(달러)	56,256	60,555	62,461	65,167	66,099
경제성장률	-0.4	1.0	2.1	1.6	2.5
소비자물가상승률	2.9	2.3	3.2	3.5	3.1

자료 : IFS, EIU

□ 대표적 역외금융센터로 관광업과 국제비즈니스를 통해 안정적 성장 시현

- 지리적 특성상 국내산업은 전무한 상태이나 관광산업과 국제기업 유치를 통하여 1인당 GDP가 60,000달러를 넘는 고소득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2000년대 들어 경제성장세가 다소 둔화되었는바, 이는 9.11 테러의 영향과 카리브 국가들과의 관광유치 경쟁으로 관광객 수가 감소함에 따른 것임. 관광객 수는 2000년 인구의 9배인 54만 명에서 2004년에는 48만 명으로 소폭 감소하였음.
 - o 버뮤다 방문객의 80%는 미국인
- 그러나 세계 유수의 재보험회사와 전자상거래회사, 국제통신서비스회사들을 유치하는 한편, 대표적 편의치적국으로 세계 편의치적선의 1/5을 유치하는 등 국제 비즈니스 센터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안정적인 성장을 시현하고 있음.
 - o 2004년 등록 국제기업수 : 12,418개
- 특히, 2001년 이후 세계 보험 산업의 중심지로 부상하면서 보험 및 재보험 분야의 규모가 2배 이상 확대되었음. 허리케인 카트리나 이후 최근에는 허리케인 피해에 대비한 손해보험의 재보험 인수 증대로 보험산업이 활성화되면서 버뮤다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음.

- 현재 버뮤다 보험 산업은 세계 재보험 시장의 1/3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험 산업의 자본금 규모는 1,000억 달러, 총자산 규모는 2,500억 달러를 상회하고 있음.
- 한편, 동국은 미국 경기의 영향을 직접 받고 있는 바, 미국 경기의 성장기조 지속으로 버뮤다 경제도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나, 최근 미국의 헤지펀드 규제강화와 OECD의 돈세탁 방지관련 역외금융센터에 대한 규제 움직임 등으로 향후 성장세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

□ 물가는 안정기조 유지

- 버뮤다 달러화가 미국 달러화와 1:1로 고정되어 혼용되고 있음. 대부분의 물품을 수입에 의존함에 따라 물가는 미국 물가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으며, 물가상승률은 지난 수년간 3% 내외 수준에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음.
- 그러나 최근 고유가 지속과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해 물가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임.

□ 재정수지는 균형수준 유지

- 재정수지는 대체로 균형을 유지하고 있음. 정부 세수는 급여세(payroll tax) 1/3, 관세수입 1/3, 기타 회사 등록세, 토지세, 인지세, 자동차세 등이 나머지 1/3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은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와 교육 부문에 집중되어 있음.

o 2006년 정부예산 : 806백만 달러(GDP의 18.3%)

2. 대외거래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경 상 수 지	145	69	126	172	182
경상수지/GDP	4.1	1.8	3.4	4.1	4.1
상 품 수 지	-684	-690	-781	-934	-987
수 출	36	57	52	31	33
수 입	720	747	833	965	1,020

자료 : IFS, EIU

□ 상품수지 적자

- 국토가 좁고 자원이 빈약하여 수출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반면 식품, 생필품, 자본재, 에너지 등 주요 품목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따라서 상품수지는 만성적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경기 호조시에는 동적자폭이 확대되고 있음.

□ 1991년 이후 경상수지 큰 폭의 흑자 지속

- 그러나 경상수지는 관광수입과 금융분야의 외환수입이 상품수지 적자를 상회함에 따라 큰 폭의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

Ⅲ. 정치 · 사회동향

1. 정치 및 국제관계

□ 영연방 자치령으로 정치 사회적 안정세 유지

- 동국은 영국 식민지였으나 1968년 헌법에 따라 영국은 국방(미국과 협조), 치안, 외교만을 담당하는 영연방 자치령이 되었으며, 내정은 상원(11석), 하원(36석)으로 구성된 의원내각제로 운영되고 있음.

- 1968년 이후 중도우파인 버뮤다연합당(UBP)이 연속적으로 집권하여 왔음. 1993년 10월 총선 이후 영국으로부터의 독립문제가 제기되어 1995년 8월 독립에 대한 국민투표가 실시되었으나 73.7% 반대로 독립이 부결되었음.
- 이에 따라 독립을 지지해온 흑인수상 Swann이 사임하고 뒤를 이어 백인인 Saul이 수상직을 승계하였음. Saul 수상은 영국과의 관계유지를 천명하고 있으나 진보노동당(PLP)은 현 정권이 소수 백인계의 이익을 옹호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독립문제를 계속 정치 이슈화해 왔음.

□ 1998년 이후 PLP 집권

- 1998년 11월 총선에서 흑인 중산층을 지지기반으로 PLP가 하원 40석 중 26석을 차지하여 최초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짐.
- Alex Scott 수상이 이끄는 PLP는 2003년 7월 총선에서도 승리하여 재집권하고 있으며,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주장하고는 있으나, 독립을 반대하는 국민들이 더 많아 조만간 독립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임.
 - o 차기 총선은 2008년 8월 예정
- 한편, 버뮤다 독립 심의위원회(BIC)는 독립비용으로 초기에 2.5~4백만 달러, 유지비용으로 매년 3.3~10.2백만 달러가 소요될 것이라고 추정한 바 있으며, 야당인 UBP는 독립에 반대하고 있음.

2. 사회 및 소요사태

□ 사회 안정성 비교적 양호

- 55%의 흑인계와 34%의 유럽계로 이루어진 인구구성으로 인한 흑백간 인종적 갈등요인이 내재하고 있으나, 높은 소득수준과 비교적 양호한 소득분배로 인해 인종분쟁 가능성은 낮음.
- 흑인을 주요 지지기반으로 하는 PLP 집권 이후 흑인의 중간관리자급 진출이 확산되었으나, 백인을 주요 지지기반으로 하는 중도우파 야당인 UBP가 독립

에 반대하는 흑인을 지지세력으로 흡수하는 등 인종보다는 독립여부에 대한 선호가 주요 사회적 관심사가 되고 있음.

- 종교는 개신교 39%, 성공회 27%, 카톨릭 15%이며, 공용어는 영어임.

IV. 국제신인도

1. 주요 기관별 신용도 평가 순위

□ Fitch 동국 신용등급 상향 조정

- 금년 8월 Fitch는 거시경제 및 비즈니스 환경 안정, 신중한 재정정책, 성숙된 정치체제, 높은 소득수준, 역동적인 국제비즈니스 활동 등을 주요 사유로 제시하면서 동국 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상향조정하였음.

□ 주요기관별 신용도 평가순위

- o Euromoney : 23/185(05.3) → 23/185(05.9)
- o S & P : AA
- o Moody's : Aa1
- o Fitch : AA → AA+(06.8)

□ 외채 규모는 미미한 수준

- 균형재정과 경상수지 흑자 지속으로 외채 규모는 GDP의 8%인 2.2억 달러로 미미한 수준임. 외채는 국채 9,500만 달러와 신디케이트론 6,200만 달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양호한 국제 신인도로 인해 해외 차입에 문제가 없고, 외채 원리금 상환에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한편, 동국은 법률로 정부차입 한도를 GDP의 10%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차입은 영국정부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주요 ECA들의 동국에 대한 인수태도는 특별한 제한이 없음.

- 미국 Exim : 정상 인수
- 영국 ECGD : 정상 인수

V. 종합 의견

- 버뮤다는 카리브해의 대표적인 역외금융센터이며 관광지로 1인당 GDP가 60,000달러를 상회하는 고소득국가임. 최근 관광객 수 감소로 성장세가 다소 둔화되었으나, 국제기업 유치 등을 통해 완만한 경제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최근 G7, OECD 등의 돈세탁 방지를 위한 역외금융센터 규제 움직임이 동국 경제의 잠재적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동국에 진출한 금융기관의 대부분이 재보험회사인 점에 비추어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또한 균형재정, 물가안정, 대규모의 경상흑자 지속 등으로 안정적 경제구조를 유지하고 있음.
- 1998년 11월 총선에서 흑인 중산층을 지지기반으로 PLP가 승리하여 최초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졌으며 독립 여부에 대해 여야가 대립하고 있으나 심각한 수준은 아니며, 정치 사회적으로도 안정을 유지하고 있음.

문의 : 책임연구원 김영석 (☎3779-6648)
E-mail : claudio@koreaexim.go.kr